동북아 여성평화회의 - 여성6자회담 환영만찬 축사

오늘 여기에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을 위한 여성6자회담을 위해 환영만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6자회담의 6자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여성지도자들이 또한 한자리에 모여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물질적 손실이 아닌 정신에서는 승자보다 여성과 어린이들과 같이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1325 결의문을 빌리지 않더라도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뒤늦게 나마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이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이래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많은 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로 한국을 분단국가로 만든 지난 60여년간 한국민들이 겪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천만의 넘는 이산가족들의 고통,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후유증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한국의 여성들에게 미친 악영향은 여성들이 짊어진 짐보다 더 클 것입니다.

6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오보다 더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서 희망을 보고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민'의 목소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지도자들이 모여 평화를 위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 평화,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여러분 여성 지도자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 참여의 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여성6자회의가 기대됩니다.

우리 한국은 이번 회의가 처음에 제안한 대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분단의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여성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남북중앙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의 지속적인 협력이 없이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머니의 힘으로 일으키는 일의 첫발자국을 떼는 오늘이 이 모임이 계획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